



# 봉수아 사용 설명서

## 자아를 찾으려는 당신에게



2019 | 10-29





# 차례

1	봉수아란?	5
	봉수아 찾아가기 . . . . .	5
	주차 . . . . .	6
2	봉수아에 머무는 동안	7
	더울 때 . . . . .	7
	추울 때 . . . . .	8
	요기하려면 . . . . .	8
	밥 짓기 . . . . .	9
	차와 커피 . . . . .	9
	침실 . . . . .	10
	텔레비전과 인터넷 . . . . .	11
	화장실 . . . . .	12
	발코니 . . . . .	12
	빨래 . . . . .	13
	쓰레기 . . . . .	13
	봉수아를 떠날 때 . . . . .	13
3	봉수골	15
	일봉냉면 . . . . .	16
	약수탕 . . . . .	16
	니지텐 . . . . .	16
	모노드라마 . . . . .	17
	봄날의책방 . . . . .	17
	전혁림미술관 . . . . .	17
	통영정원 . . . . .	18

김선생총무김밥	18
백서냉면	19
몸과마음	19
<b>4 미륵도와 통영 반도</b>	<b>21</b>
케이블카	22
루지	23
편백나무숲	23
해안누리길	24
박경리 기념관	24
통영 수산 과학관	25
이순신 공원	25
동피랑과 서피랑	25
북신시장	26
<b>5 섬, 섬, 섬</b>	<b>27</b>
한산도	28
비진도	28
소매물도	29
<b>6 축제</b>	<b>31</b>
벚꽃	31
문화재야행	32
<b>7 통영은 우리에게</b>	<b>33</b>

# 제 1 장

## 봉수아란?

봉수아 烽燧我 는 “봉수골에서 자아를 살펴보라”는 뜻으로 이정화가 지은 그녀의 봉평아파트의 이름이다. 봉평아파트에서 용화사를 거쳐 미륵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 그 정상 언저리에서 봉수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봉수대를 봉화대 烽火臺 라고도 한다. 낮에는 연기를, 밤에는 불을 피워 외적의 출현을 전파했다.

여기서 문제, 봉화 넷은 무엇을 의미할까?

- 봉화 하나: 무사태평
- 봉화 둘: 적이 바다에 출현
- 봉화 셋: 적이 해안에 접근
- 봉화 넷:
- 봉화 다섯: 적과 교전

### 봉수아 찾아가기

인공지능은 비행기나 기차 같은 허튼 방법도 따져보겠지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봉수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뿐임을 안다. 자가용 아니면 고속버스.

봉평아파트가 통영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약 6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 택시로 약 8천 원
- 터미널에서 231 번 시내버스를 타고, 봉평주공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중앙시장에 들르고자 한다면, 터미널에서 301 번이나 101 번 시내버스를 타고, 문화마당 정류장에서 하차. 볼일 본 다음에 문화마당에서

200 번대 중 아무 버스나 타고, 봉평주공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주차



봉평아파트는 낡았지만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넉넉한 주차 공간이다.

## 제 2 장

### 봉수아에 머무는 동안



#### 알림

내 칫솔이나 속옷까지 쓰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봉수아에 있는 무엇이든 사용하고 소비할 수 있다. 동전조차도. 봉수아를 떠날 때, 생수나 쓰레기 봉투 같은, 소비한 물건들을 채워놓을 필요도 없다. 유쾌한 기억과 함께 돌아가시기만 바랄 뿐이다.

#### 더울 때

봉수아에 들어섰을 때, 미륵산이나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때문에 그럴 리 없겠지만, 너무 덥다면 오른쪽을 돌아보라. 허리 높이보다 약간 더 큰 자그마한 책장이 보일 것이다. 위 둘째 칸에서 에어컨 리모컨을 찾을 수

있다.

에어컨 설치 기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 화장실 문을 반드시 닫아라. 의외로 적지 않은 냉기가 화장실을 통해 유실된다.
- 방들까지 식히는 것은 무리이다. 방문을 모두 닫아라.
- 거실이 시원해지면 두 방 중 하나는 시원하게 할 수 있다. 문을 열고 선풍기를 이용하여 찬바람을 방 안으로 보내라.

## 추울 때

추우면 안방 문 옆에 있는 전기 라디에이터를 사용하시라. 에어컨과 마찬가지로 방들까지 데울 수 없으니 방문을 모두 닫는 것이 좋다.

### 알림

2019년 6월 현재, 봉수아에 보일러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유감스럽지만 더운 물로 샤워를 할 수가 없다. 가을이 오면, 늦어도 겨울이 오기 전에 석유 보일러가 설치될 것이다. 대안은 약수탕을 이용하는 것이다. 16쪽 약수탕을 보라.

## 요기하려면

아쉽게도 봉수아는 주방 집기를 풍족하게 갖추고 있지 않다. 게다가 냉장고가 작아서 많은 식품을 저장하기가 여의찮다. 그러니 성찬을 차릴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 싱크대가 좁아서 설거지조차 불편하다.

### 알림

운이 좋다면 냉장고에서 김치 같은 약간의 먹거리를, 그리고 싱크대 옆 선반에서 라면이나 즉석밥 따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음식이 사라진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참기름 같은 양념이 없다고 푸념하지 마시라. 사서 쓰시라. 혹 우리나라 다른 방문객을 위해 남겨둔다면 고마울 따름이다.

## 밥 짓기

두 가지 밥 짓기 방법이 있다.

- 주황색 전기밥솥을 이용한다. 압력솥이 아니기 때문에 불린 쌀을 쓰는 것이 좋다. 물은, 쌀 위에 손바닥을 얹었을 때, 손등이 잠길 만큼.
- 싱크 캐비닛 안에 무쇠솥이 있다. 누룽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무쇠 솥이 가진 장점 중 하나이다.

무엇으로 무쇠솥을 가열할 것인가? 봉수아에는 가스레인지가 없다. 대신 인덕션 버너와 하이라이트 버너로 구성된 전기레인지가 있다.

왼쪽에 있는 인덕션 버너는 그것과 접촉한 솥이나 냄비에서 직접 열을 발생시킨다.<sup>1</sup> 빨리 가열되는 반면 화상의 위험이 적다는 것이 이것의 장점이다. 오른쪽에 있는 하이라이트 버너는 전형적인 발열 코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재질과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레인지를 작동하려면 전기레인지와 연결된 멀티탭의 스위치를 켜시라. 전기레인지가 켜지면 냉각 팬이 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한다.

무쇠솥으로 밥을 지으려면 하이라이트 버너를 사용해야 한다.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요철이 있기 때문이다.

### 주의

여러 기구들이 하나의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다. 전기 레인지를 사용할 때 다른 기구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번에 여러 기구들을 가동하면 (멀티탭이 아니라) 콘센트의 퓨즈가 녹을 수 있다. 그러면, 어려운 것은 아님지만, 콘센트 교체가 분명 매우 짜증나는 일이 될 것이다.

## 차와 커피

싱크대 옆 선반에 주전자를 비롯하여 차나 커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물들이 있다. 하지만 차와 커피가 떨어진 날도 있을 것이다.

---

<sup>1</sup>인덕션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 자기장에 의해 인접한 금속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며 열이 발생한다. 전기 전도율이 높은 금속일수록, 그리고 바닥이 넓을수록, 유도 전류가 잘 발생한다.

## 침실



방 두 칸이 있다. 왼쪽 방이 작은방이고 오른쪽이 안방이다. 40년 전에 지어진 봉평아파트에는 요즘 건축 양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색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문틀과 창문틀이 콘크리트라는 것이다.

이 집을 개수한 실내 공사업자가 난방을 이유로 모든 창호를 새 것으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였다. 당시에 그 비용을 감당할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안에 따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이정화와 달리, 콘크리트 문틀을 유지하고 싶었다. 조선총독부 청사가 1995년에 철거되었다. 갖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철거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였다. 나는 그때 찬성하는 편에 섰었다. 지금은 그 선택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를 상기하는 것이 괴롭더라도 그것은 우리 역사의 일부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망각되기 마련이니, 이 아파트가 사라지면 콘크리트로 문틀을 만들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기억하겠는가?



안방에 온수 매트와 책상이 있다. 옷장이 없고 대신 행거가 있다. 그밖에 다른 가구가 없어서 둘이 자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불을 수납하기 위한 장롱이 갖춰질지 모르겠다.



작은방을 통해 발코니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방도 둘이 자기에 충분하다.

## 텔레비전과 인터넷

“통영에서 먹을 게 없으면 죽어야 한다”는 우스갯말이 있다. 그만큼 통영에는 먹을거리와 볼거리와 할거리가 넘친다. 그런데도 굳이 텔레비전을 보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야 하겠는가? 봉수아에서 걸어서 20분을 올라가면 산속에 들고, 20분을 내려가면 바닷가에 닿는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보여주는 인공의 이미지들을 멀리하고, 온갖 날것들을 당신의 오감으로 겪어 보시라.

봉수아의 사용빈도를 고려할 때, 인터넷TV에 가입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낮을 것이다. 우리가 봉수아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달라지겠지만.

음악을 듣고 싶다면 작은탁자 위에 라디오를 이용하라. 그것은 블루투스스피커로도, MP3 플레이어로도 가능할 수 있다.

## 화장실



화장실에 두 가지 사소한 불편이 있다. 하나는 문에 잠금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변기가 시원하게 배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장지나 물티슈를 변기에 버리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스테인리스 대야가 있다. 곤란한 상황에서는 대야로 물을 부어주는 것이 변기 물이 내려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발코니



발코니에서 흡연이 위층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

발코니에 있는 등산용 배낭과 지팡이를 사용해도 된다.

## 빨래



발코니에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다.

천장에 설치된 빨래 건조대를 내리려면 건조대에 연결된 줄을 바깥쪽으로 낚아채듯 당기라. 빨래를 건조대에 넌 다음에, 줄을 아래로 당겨 건조대를 올리고 창문 잠금쇠 같은 것에 줄을 묶어라.

## 쓰레기

화장실 앞 바구니에 쓰레기 봉투와 재활용되는 물건들을 담아두라. 3동 아파트 옆에 6동이 있다. 그 앞에 쓰레기 컨테이너와 식당들이 쓰는 것과 같은 음식물 쓰레기 컨테이너가 있다. 물론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한 자루들도 거기에 함께 있다.

### 알림

소각될 수 있는 것들만 쓰레기 봉투에 담아야 한다. 떠나기 전에 봉수아를 깨끗이 청소해 주시길.

## 봉수아를 떠날 때

봉수아에 들어왔을 때 창문과 방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면 떠날 때도 열어 두시라.

###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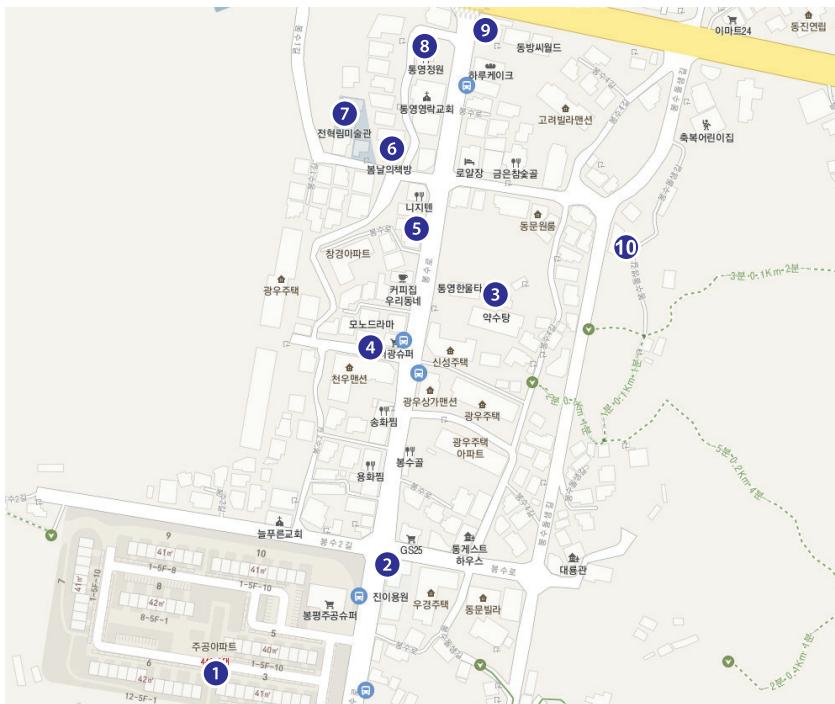
해안 도시들이 모두 그렇듯이 여름에 통영이 매우 습하다. 잠시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특히 장마철에, 곰팡이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건집을 수 없이 피어난다.



## 제 3 장

### 봉수골

봉수골에서 들을 만한 곳들을 이 지도가 보여준다. 봉수아에서 가장 면 곳도 느린 걸음으로 10분을 넘기지 않는 거리에 있다.



1 봉수아

4 모노드라마

7 전혁림미술관

10 백서냉면

2 일봉냉면

5 니지텐

8 통영정원

3 약수탕

6 봄날의책방

9 김선생총무김밥

이 글에서 소개하는 것들 말고도 봉수골에 많은 식당들이 있다. 특히 봉수로가 짐의 거리라 불릴 만큼 생선짬을 파는 집들이 여럿 있다. 그 식당들을 이 글에 담지 않는 까닭은 후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음식들을 내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장게장은 알레르기 때문에…

## 일봉냉면

일봉냉면이 일품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여느 수준은 뛰어넘는다. 고기만두가 곁들여 먹을 만하다. 통영의 식당들 대부분이 서울에 비해 저렴하거나 푸짐하다. 이 집은 저렴한 쪽에 속한다.

## 약수탕



봉평아파트에서 길을 따라 300 미터 내려가면 건너편에 약수탕이 보인다. 오전 여섯 시에 문을 열고 오후 여덟 시에 닫는다. 목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약수탕은 부러 이용해볼 만하다. 그 매력이 무엇인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라.

## 니지텐



니지텐 虹天, にじてん 에서 텐동 天丼, てんどん이라 불리는 튀김덮밥을 먹을 수 있다. 이 집은 전형적인 일본 식당처럼 늦은 오후에 잠시 문을 닫는다. 기다림 없이 식탁을 차지할 수 있기를 기대 하지는 마시라, 제법 유명한 집이라… 쉬는 날은 월요일이다.<sup>1</sup>

<sup>1</sup>[https://www.instagram.com/nijiten\\_ty/](https://www.instagram.com/nijiten_ty/)

## 모노드라마



약수탕에 못 미쳐 맞은편 골목으로 대여섯 발 들어가면 이 흑백 전문 사진관이 눈에 들어온다. 주인장의 요구에 따라 거푸 낮가지러운 자세를 잡노라면 전지현이 쉽게 돈 버는 게 아님을 깨닫는다. 달랑 사진 한 장 갖고 나오기가 미안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라. 당신의 손에 적어도 대여섯 장의 사진이 쥐어져 있을 테니.

## 봄날의책방



봄날의책방은 남해의봄날이라는 출판사가 운영하는 작은 서점이다. 작다고 해도, 서점 치고 서가에 진열된 책들이 너무 적지 않나 싶다. 금전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아닌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치를 기준으로 책들을 선정하기 때문이란다.

거의 대부분의 출판사가 파주 출판 도시에 있다. 통영에 출판사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은가? 이 공간에 그들이 고심한 사유의 편린들이 흩어져 있다.<sup>2</sup>

## 전혁림미술관

어느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노래에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은가? 나는 축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나 이강인의 마르세유 텐이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알아차린다. 공원을 산책할 때 이따금 어떤 조각품에, 별 안목이 없지만, 시선을 빼앗긴다.

<sup>2</sup><http://bomnalbooks.com/>



아주 특별한 것들은 중력과 같아서 거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주류와 거리를 둔 탓에 노년에서야 비로소 주목을 받은 전혁림은 생의 대부분을 이 작업실에서 보냈다고 한다.

## 통영정원



통영정원은 그 이름대로 여염집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화초로 꾸며진 정원을 자랑한다. 멍게비빔밥과 굴비빔밥이 이 집의 대표 메뉴이다. 그 음식이 정원만큼 맛나려나?

## 김선생충무김밥

충무김밥이 맛있는가? 부산과 다른 도시에서 충무김밥을 먹을 때마다 나의 선택을 후회했다. ‘왜 이렇게 비싸지, 로열티라도 붙나?’

강구안 해안로를 따라 충무김밥 집들과 꿀빵 집들이 씨실과 날실처럼 얹혀 있다. 그곳 어느 집에서 처음으로 통영이 충무김밥의 본고장임을 상기했다. 하지만 감동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 집의 충무김밥은 김밥부터 오징어 무침까지 맛에서 나무랄 데가 없으나, 김밥에 비해 깍두기와 오징어 무침이 너무 많다. 그것들의 양념이 다소 지나쳐서 속이 불편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아무도 양이 부족하다고 불평할지 못할 것이다.

## 백서냉면



완벽함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에 비로소 완성된다. Antoine de Saint-Exupéry

백서냉면을 맛보면 이 찬사가 지나치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동안 저녁 장사를 위해 문을 닫는다.

몇 해 전에 죽림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봉평동에서 많은 이들이 그 곳으로 옮겨갔다. 그 빈 자리들이 하나씩 외지인들에 의해 채워졌다. 그것은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과 사뭇 다른 이야기이다. 그 외지인들은 봉수골에서, 아마도 토박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을, 안식의 공간을 발견했다. 백서냉면의 주인 내외가 그 외지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 냉면 맛에서 그들의 지나온 여정이 평범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몸과마음



봉수아에서 용화사 쪽으로 150 미터를 걸어 올라가면, 15 페이지 지도에 보이지 않는데, 길 원편에 “몸과마음”을 암시하는 두 M자가 걸린 카페가 보인다. 흔히 볼 수 없는 색다른 물건들로 이 카페가 오밀조밀하게 채워져 있다.



## 제 4 장

### 미륵도와 통영 반도



판데목이라 불리는 좁은 해협 위에 놓인 통영대교와 충무교가 봉수아가 위치한 미륵도를 물에 연결한다. 위 사진은 충무교에서 찍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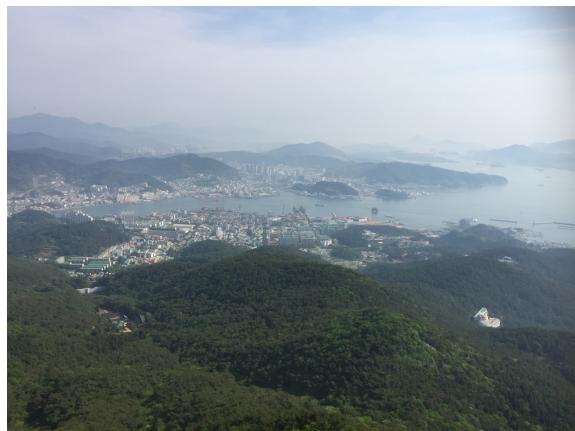


그 두 다리 말고 미륵도를 넘나들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해저 터널이 바로 그것이다. 미륵도 쪽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길이 완만하고 길다. 그 길목을 덮은 지붕이 인상적이다.

일제가 1930 년대에 판데목을 깊이 파내어 운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아래를 지나는 터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은 모양이다. 혹시 일본에서 해보기 전에 시험 삼아?

판데목이 얇아서 미륵도가 썰물에 물이 되고 밀물에 섬이 되었으며, 그래서 고려 때부터 이 물길을 필요에 따라 메우기도 하고 트우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그럴 듯하게 들리지 않는다. 운하를 만드는 것과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에는 상당한 기술과 인력이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목적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십 세기 이전에 통영에서 그런 것이 가능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 케이블카



인간의 시야각이 200 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눈에 다 보인다”는 말은 거짓일 공산이 크다. 미륵산 꼭대기에서 북쪽을 내려보면 주로 인간들이 거주하는 영역이 보인다.

미륵산에 오르는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이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이다. 봉수아에서 느린 걸음으로 30 분 거리에 통영 케이블카의 하부역사가 있다. 08:30부터 18:00까지 표를 살 수 있고, 09:00에 운행이 시작된다. 성인 왕복 요금이 1만 4천 원이다. 상부역사에서 정상까지 잣걸음으로 15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sup>1</sup>

정상에서 걸어 내려오기로 선택한다면, 편도 요금이 1만 5백 원이니 3천 5백 원을 아낄 수 있다. 산등성을 따라 내려가는 오솔길이 대체로 완만하여 그다지 수고롭지 않고, 느린 걸음으로도 봉수아까지 두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

<sup>1</sup><http://cablecar.ttdc.kr/>



상부역사 옥상 두 곳에 유리 바닥 전망대가 있다. 오금이 저릴 만큼 무서우면 재미있으련만. 동쪽 전망대에서 마파산 너머로 보이는 것이 한산도이다. 마파산 앞 개활지가 동원 로얄 컨트리 클럽이다. 아쉽지만 골프는 내가 즐기기에 너무 비싼 스포츠.

## 루지



어린 아이들과 동행한다면 통영 케이블카 옆에 있는 스카이라인 루지를 못 본 체 지나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루지 luge 라기보다 실사판 카트라이더 게임이다. 주말에는 매우 불비니 평일에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sup>2</sup>

## 편백나무숲



미래사에 속한 편백나무숲이 봉수아에서 차로 약 20 분 거리에 있다.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이 2백 미터 넘게 이어진다. 흔하지 않지만 아주 이채롭지도 않은 이 숲의 풍광이, 계다가 씩 넓지도 않아서,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갑자기 마주하는 장면이 숲과 극단적으로 대비되어 강렬한 인상을 준다. 그리고 그 때문에 숲이 신비로워 보이기 시작한다. 매일 만나는 연인을 느닷없이 마주쳤을 때 갖는 설렘이랄까.

<sup>2</sup><https://www.skylineluge.com/ko/tongyeong/>

## 해안누리길

차로를 이용하면 미륵도를 일주하는 거리가 30 킬로미터에 미치지 못한다. 그 정도 거리라면 자전거로도 해볼 만하다. 도남관광단지로 들어가는, 도남로와 발개로가 만나는 곳에 자전거 대여점이 있다. 그곳에서 전동 킥보드도 빌릴 수 있다.

제주가 2007년에 올레길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뒤로 다른 여러 지방 정부들이 둘레길을 따라 만들기 시작했다.



미륵도에도 “해안누리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둘레길이 있다. 금호리조트 통영마리나 뒤편에서 해안누리길이 시작한다.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길이 해안을 따라 줄곧 이어지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 박경리 기념관



통영 충렬사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칼을 볼 수 있다. 한 소설가의 기념관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그의 어떤 작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기념관 방문이 공연한 것이 되지는 않을까?<sup>3</sup>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들 가운데 “위대하다”는 수사가 누구에게 마땅한가? 이정화는 이 기념관에서 “김약국의 딸들”을 사서 이틀만에 독파했다.

통영은 다도해 부근에 있는 조출한 어항이다. 부산과 여수 사이를 내왕하는 항로의 중간 지점으로서 그 고장의 젊은이들은 조선의 나폴리라고 한다. 그러니만큼 바닷빛은 맑고 푸르다. 북쪽에 두루미 목만큼 좁은 육로를 빼면 통영 역시 섬과 별다름이 없이 사면이 바다이다. 벼

<sup>3</sup><http://pkn.tongyeong.go.kr/main/>

랑가에 얼마쯤 포전(浦田)이 있고, 언덕배기에 대부분의 집들이 송이  
버섯처럼 들앉은 지세는 빈약하다.

## 통영 수산 과학관

아주 오래된 것들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라면 목화석 木化石 에도 흥미를 가질 것이다. 목화석은 말 그대로 나무 화석이다. 이 곳에서 여러 목화석을 볼 수 있다.<sup>4</sup>

목화석은 기묘한 감각 경험을 제공한다. ‘왜 장작개비들을 나란히 세워두었지?’ 다가서면서 가까워져도 그것들이 나무가 아닌 다른 것이란 의심이 들지 않는다. 알지 못하고 만진다면 그 느낌이 놀라움을 넘어선다.

## 이순신 공원



누구나 짐작할 만한, 이순신 공원에 이순신 동상이 있으리란 점을 제외하면,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공원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경관이 이순신 동상 뒤로 펼쳐져 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이어진 연들 사이에 매달린 현수막이 말한다.

“이곳에 오신 분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미 충분히 즐겁습니다만.

## 동피랑과 서피랑

“피랑”이 “벼랑”을 뜻한다고 한다. 중앙시장 뒤 산자락에 자리한 동피랑 마을이 부산의 감천 마을을 닮았다. 작고 낡은 집들 사이 비좁은 골목을 따라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가 이 마을을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여행객들이 빚어내는 소란이 성가시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른 새벽에 시작하는 일에 종사하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집들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보인다.

박경리가 태어난 서피랑은 이중섭이 한국전쟁 동안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sup>4</sup><http://muse.ttdc.kr/>



서피랑 여기저기에 박경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 서피랑에서 오랜 집들과 더 오랜 집들과 아주 오랜 집들을, 마치 현대 가옥의 변천사를 추적하듯, 발견 할 수 있다.

해방 이후에 서피랑이 서서히 홍등가가 되었다고 한다.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선으로 가득 찬 배가 항구에 들어온다. 신난 선주가 배에서 내리는 어부들에게 돈뭉치를 두어 다발씩 안겨준다. 그들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닌 서피랑의 한 술집. 그들이 왁자지껄하게 술을 들이키고 있을 때, 그 아내들은 돌짜리를 업고 마을 어귀를 바라보며 대문 앞에서 서성인다. 밤이 깊고 샛별이 떴을 때에도 남편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어부들이 잠에서 깨어 유곽의 한 구석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주머니에서 만져지는 것은 고작 동전 몇닢뿐.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시 배를 타야 한다!’

## 북신시장

통영에 세 곳의 시장이 있다. 중앙시장, 서호시장, 그리고 북신시장. 회와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포장하여 봉수아에서 먹고자 한다면 북신시장이 추천할 만하다. 중앙시장은 대개 관광객을 위주로 영업하고, 서호시장은 소매보다 도매 중심이라,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시장이 북신시장이라고 한다. 통영 사람들은 북신시장을 거북시장이라고 부른다. 거북시장 옆 공영주차장이나 뉴월드마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마트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려면 뉴월드마트에서 담배 한갑이라도 사야 한다.

## 제 5 장

### 섬, 섬, 섬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통영을 둘러싼 여러 섬들을 왕래하는 배에 오를 수 있다.<sup>1</sup> 가까운 한산도에 가는 배는 한 시간마다 있고, 더 멀리 떨어진 섬에 가는 배는 그보다 덜 자주 있다. 하루 주차비는 5천 원.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어느 섬에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노선의 배들을 수용하기에 부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륵도를 일주하면서 다른 여러 여객선 터미널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 알립

여객선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표를 끊을 때에도, 승선 할 때에도 신분증을 요구받는다.

<sup>1</sup><http://masan.mof.go.kr/content/view.do?menuKey=472&contentKey=177>

## 한산도

閑山島月明夜. 上戍樓. 撫大刀深愁時. 何處一聲羌笛更添愁.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올라 큰 칼을 쓰다듬으며 깊이 시름할 때  
어디선가 오랑캐 피리 소리가 시름을 더하는구나.

한산도에 가면 그 수루를 볼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다는 한산정이라는 활터도 볼 수 있다.<sup>2</sup> 그렇지만 배를 타는 수고를 들일 만큼 그것들이 매력적인지는 모르겠다.

## 비진도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로 50 분 거리에 있는 비진도가 모래시계처럼 생겼다. 외항이라 불리는 그 잘록한 허리의 동쪽 절반이 신기하게도 돌과 바위로, 서쪽 절반이 모래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와 이정화가 이 섬을 찾았을 때가 해수욕을 하기에 이른 철이었다. “뭘 하지?” 한 식당에서 우럭매운탕을 먹은 뒤에 우리는 선유봉에 오르기로 했다. 산 입구에서 곧장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다 하여 서쪽으로 난 길을 따랐다. 두 시간 뒤에 우리는 그 조언이 쓸데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오히려 반대 경로가 나을 듯. 해발 312 미터.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그야말로 해수면에서 시작한 높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팬한 걸음은 아니다, 이 섬의 중턱에서 진기한 풍경이 선물처럼 기다리고 있으니.

---

<sup>2</sup>과녁이 중간에 작은 만을 끼고 한산정에서 150 미터쯤 떨어져 있다. 해수면 위를 나는 화살을 상상해 보라.

## 소매물도



비진도에서 남쪽으로 40 분을 더 가면 소매물도에 다다른다. 소매물도에 가까워지면서 섬들이 드물어지고 수평선이 나타난다. 그 수평선이 동해의 것과 사뭇 다르다. 어떤 사진도 소매물도 바다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할 것이다.

선착장에서 출발하여 섬의 정상을 넘거나 섬의 허리를 돌아 반대편으로 가면 등대섬이 보인다. 물이 빠지면 걸어서 등대섬으로 건너갈 수 있다. 물이 빠지는 때가 매일 50 분 가량 느려진다.<sup>3</sup> 나는 물이 무릎 높이로 차 있을 때 그 길을 건넜다. 물이 투명하여 바다가 아닌 넓은 계곡을 가로지는 것 같았다. 오묘한 느낌을 주던 그 경험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소매물도와 그 바다는 빛을 내어서라도 보아야 한다.

### 주의

소매물도에 갈매기와 철새들만이 아니라 독사들도 서식한다.

<sup>3</sup><http://www.khoa.go.kr/swtc/mai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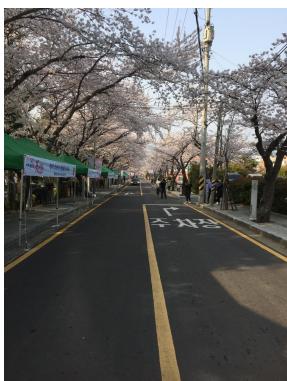


## 제 6 장

### 축제

통영은 기릴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일년 내내 거의 쉴 새 없이 크고 작은 축제들이 열린다.

#### 벚꽃



벚꽃은 어디에나 흔하지만, 대관령에 눈이 여전히 쌓여있을 삼월과 사월의 경계에 훌연히 핀 벚꽃은 연인의 예고 없는 방문만큼 반갑다. 한반도에서 가장 일찍 시작하는 벚꽃 축제가 봉수골에서 열린다.

## 문화재야행



통영이란 이름이 오늘날의 해군사령부에 해당하는 삼도수군통제영 三道水軍統制營에서 비롯되었다.



통제영의 본관이 세병관 洗兵館 이다. 경회루에 버금가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저 건물에 V 포즈는, 이 사진이 증명하듯,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정화 씨, 비켜 주세요!

## 제 7 장

### 통영은 우리에게



이정화와 함께 통영을 처음 방문한 2016년 이전에 나는 통영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통영에 연고를 둔 지인들 덕에 그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이 항구 도시에 들러 며칠씩 머물곤 했다. 맛난 것을 자식에게 먹이고 싶고 아름다운 곳을 배우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때 강구안이 보이는 나폴리 호텔에 묵었는데, “나폴리”라는 이름이 허투루 지은 것이 아님을 나는 한참 뒤에 깨달았다. 그 조선의 나폴리는 내게도 첫눈에 든 소녀처럼 매혹적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부족한 삼 년이 흐른 지난 이월에 그녀가 느닷없이 내게 말했다.

“통영에 쌓아파트가 있다. 가서 보고 올게.”

집을 나선 지 하루만이었나, 그녀가 내게 전화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 사고 싶어.”

내가 그녀였다면 크기와 가격을 비롯한 아파트 정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수리 범위와 비용, 향후 아파트 이용 계획 또는 부동산 가치의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의문들을 묻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그렇게 해”라고 답했다. 그런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그녀가 이정화일 리 없다. 그녀가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결혼이 더 행복했을까?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그녀가 우리의 거주지에서 38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는 낡고 추레한 아파트를 사고 싶어한다는 것과, 이십 년 가까이 그녀와 함께 보낸 세월이 내게 가르쳐준 것인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이든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는 한 절대로 그냥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주 뒤에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거래 계약서를 쓰기 위해 그녀와 함께 통영에 내려왔다. 그 다음부터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삼월 말에 내려와서 잔금을 치렀다.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철거업자에게 벽지와 장판 그리고 고장난 보일러의 제거를 맡겼다. 수십 년 동안 필요에 따라 덧댄 여러 겹의 벽지를 뜯어내는 것이 보통 고역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봉수골에 정착한 외지인들 사이에 형성된 사회망이 있다. 이정화의 지인 중 한 사람이 그 사회망에 끈을 갖고 있다. 그런 끈이 없었다면 그녀가 봉평아파트의 존재를 어찌 알았겠는가? 사회망이란 스포츠 클럽이나 전염병과 같은 것이어서 그 구성원들 중 단 한 사람만 접촉해도 오래지 않아 그 모든 사람들을 알게 된다. 그 가운데 봉평아파트에 산 지 일년 가량 된 부부가 있다. 그 집 부인을 통해 실내 공사업자를 소개받았다.

사월이 되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기레인지와 비롯한 여러 세간 살이를 쿠팡에 주문했다. 나의 직장 동료 중에 1톤 트럭을 가진 이가 있다. 그의 도움을 받아 새 물건들을 사용하던 물건들과 함께 봉수아로 가져갔다. 시작한 지 거의 다섯 시간만에, 한 사발의 땀을 쏟은 뒤에, 가져간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의 설치를 마쳤다.



미수해안로에 많은 횟집들이 있는데, 그날 그와 내가 기울인 노동에 합당해 보이는 “민수사”라는 집을 내가 선택했다. 이토록 푸짐하고 골고루 맛있는 코스 요리를 전에 먹어본 적이 있었나?

그 다음 주에 한 친구와 함께 봉수아에 다녀온 이정화가 많은 것들을 정돈 했노라고 내게 말했다. 어린이날을 앞둔 주말에 그녀와 함께 봉수아를 다시 찾았을 때,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컵과 접시를 제외하면, 그녀들이 만든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았다. 싱크대 바닥에 지워지지 않는 노란 얼룩이 있다. 이정화가 싱크대 위 선반을 칠하면서 흘린 니스 자국이다.



우리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민수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동백”을 선택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을 나는 몹시 싫어하는데, 이 집에서는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현충일부터 나흘 동안 머물면서 실내 장식을 마무리지었다. 발코니 창에 발을 달고 천장에 빨래 건조대를 설치했다. 두 방에 행거를 설치하고 거실에 식탁과 에어컨을 설치했다. 이제 겨우 지낼 만한 집이 되었다.



---

© 2019 이호재와 이정화  
경상남도 통영시 봉수로 86, 봉평아파트





# Bongsua Guide

## To Help You Take Good Care of Yourself



2019 | 10-29





# Contents

<b>1</b>	<b>What is Bongsua?</b>	<b>41</b>
	Visiting Bongsua . . . . .	41
	Parking . . . . .	42
<b>2</b>	<b>While Staying at Bongsua</b>	<b>43</b>
	When It Is Hot . . . . .	43
	When It Is Cold . . . . .	44
	To Stave Off Hunger . . . . .	44
	Cooking Rice . . . . .	45
	Tee and Coffee . . . . .	46
	Bedrooms . . . . .	46
	TV and Internet . . . . .	47
	Bathroom . . . . .	48
	Balcony . . . . .	48
	Laundry . . . . .	49
	Garbage . . . . .	49
	When Leaving Bongsua . . . . .	49
<b>3</b>	<b>Bongsugol</b>	<b>51</b>
	Ilbong Naengmyeon . . . . .	52
	Yaksutang . . . . .	52
	Nijiten . . . . .	53
	Monodrama . . . . .	53
	Bomnarui Chaekbang . . . . .	53

Jeon Hyeokrim Art Museum . . . . .	54
Tongyeong Jeongwon . . . . .	55
Gimseonsaeng Chungmu-Gimbap . . . . .	55
Baekseo Naengmyeon . . . . .	56
Momgua Maeum . . . . .	56
<b>4 Mireukdo and Tongyeong Peninsula</b>	<b>57</b>
Gondola Lift . . . . .	58
Luge Ride . . . . .	59
Cypress Forest . . . . .	59
Haeannurigil . . . . .	60
Park Kyongni Memorial Hall . . . . .	61
Tongyeong Fisheries Science Museum . . . . .	61
Yi Sunsin Park . . . . .	62
Dongpirang and Seopirang . . . . .	62
Buksinsijang . . . . .	63
<b>5 Islands</b>	<b>65</b>
Hansando . . . . .	66
Bijindo . . . . .	66
Somaemuldo . . . . .	67
<b>6 Festivals</b>	<b>69</b>
Cherry Blossom . . . . .	69
Cultural Heritage Night Tour . . . . .	70
<b>7 Tongyeong Is to Us</b>	<b>71</b>

# Chapter 1

## What is Bongsua?

Bongsua 烽燧我 is coined by Yi Jeonghwa to indicate her Bongpyeong Apartment, meaning *introspect yourself at Bongsugol*. Bongsugol means a hamlet where beacon towers used to be.<sup>1</sup> From the apartment, you can reach the summit of Mount Mireuksan by way of a Buddhist temple called Yonghwasa. The faint vestige of the beacon towers that had been used in the Joseon dynasty is found in the vicinity of the summit. The beacon towers, called bongsudae 烽燧臺 or bonghwadae 烽火臺, had used plumes of smoke in the day and fires at night to alert of approaching enemies.

Here is a quiz. What does the four-plume singal stand for?

- One plume: Happy-go-lucky
- Two plumes: Enemies appeared from the sea.
- Three plumes: They are approaching the coast.
- Four plumes:
- Five plumes: They are engaged.

### Visiting Bongsua

An artificial intelligence may calculate absurd routes to Bongsua, including trains and flights. However, we know there are only two available methods to get to Bongsua without a deep consideration: Drive

---

<sup>1</sup>“Bongsu” or “bonghwa” means beacon, and the suffix “-gol” means a dale or the hamlet in it.

yourself or take an express bus.

Bongpyeong Apartments are six kilometers away from the Tongyeong intercity bus station. 통영 종합 버스 터미널

- About ₩8,000 by taxi.
- Take bus 231 at the bus station and get off at bus stop 1803 봉평주공아파트.
- If you would like to drop by Jungangsjang 중앙시장 or its neighboring places, take bus 301 or 101 and get off at bus stop 1209 문화마당. When your task is done, take any bus numbered in the 200's at the same bus stop and get off at bus stop 1803.

## Parking



Bongpyeong Apartments are outdated but still has some merits, one of which is its spaceous parking lots.

The gleaming bluish car in this picture is my lovely Bolt EV.

## Chapter 2

### While Staying at Bongsua



#### Note

You may use and consume whatever you like, even coins, though I don't expect you'll use my toothbrush and underpants. Besides, you don't need to replenish consumables such as bottled water or plastic garbage bags. I only wish you to return with pleasant memories.

#### When It Is Hot

If you feel hot when you get into Bongsua, though it is unlikely to happen thanks to cool wind from Mount Mireuksan or the sea, take a look to your right. There stands a waist-high bookcase. Find the remote control

for the air conditioner on the second shelf from the top.

It is wise to follow the advice from the installer of the air conditioner.

- Keep the bathroom door closed. More of cool air than expected escapes from the bathroom.
- Due to the poor capacity of the air conditioner, it is unachievable to additionally cool down the bedrooms. Keep all the bedroom doors closed.
- Once the living room is cool enough, you can make at least one bedroom cool. Open a bedroom door and put the fan in front of the entrance to let it blow cool air into the room.

## When It Is Cold

Use the electric radiator by the entrance of the bigger bedroom when you feel cold. The capacity of the radiator is as limited to the living room as the air conditioner is so that you might as well keep all the bedroom doors closed.

### Note

As of July 2019, Bongsua has no boiler installed. I'm sorry to say that you can't take a warm shower. Hopefully, a kerosene boiler will be installed before winter comes at latest. A makeshift is use a bath-house called Yaksutang 억수탕. See Yaksutang on page 52.

## To Stave Off Hunger

Regrettably, Bongsua is not well furnished with kitchen utensils. The refrigerator is particularly too small to contain a lot of food. You'd better give up on a lavish meal. Even the sink is so small that you may feel uncomfortable when washing the dishes.

## Note

If you are lucky, you'll find some foods, such as gimchi, instant noodles or rice, in the refrigerator or on the rack by the stove cabinet. We won't be disappointed even if all the food is gone. However, do not grumble that some spices, such as sesame oil, are unavailable. Buy what you need. If you leave it for us or other visitors, it'll be appreciated.

## Cooking Rice

There are two available methods to cook rice.

- Use the orange electric rice cooker. It's not a pressure cooker, so you'd better soak rice. Add as much water as covers your spread hand on the soaked rice.
- There is a cast iron pot in the sink cabinet. One of its benefits is that you can get crunchy rice.

What should you use to heat the cast iron pot? In place of a gas stove, the kitchen is equipped with an electric stove, which consists of an induction burner and an infrared burner.

The induction burner on the left causes a pan or pot in contact with it to generate heat directly.<sup>1</sup> The conspicuous merit of this burner is that it heats food so quickly with less risk of burn. The infrared burner on the right is made up of a typical heating coil. The best merit of this burner is that you can use any pot no matter what the material and shape, even glass pots. To turn on the electric stove, put on the corresponding switch on the power strip to which it is connected. The cooling fan makes noise as it starts.

Use the infrared burner to cook rice using the cast iron pot. The induction burner is not available with the pot because its bottom is not smooth.

---

<sup>1</sup>A magnetic field is produced when the induction coil is energized. The magnetic field causes electric current to flow through a metallic object within its range, and consequently heat is generated. The amount of induced current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metal. The higher the current conductivity and the wider the contact surface, the more electric current is produced.

## **Caution**

Several electric appliances are connected to one wall outlet. Avoid using other appliances simultaneously when using the electric stove. Running multiple appliances at a time may cause the wall outlet to fuse. Then, replacing the wall outlet must be very annoying although it is not difficult.

## **Tee and Coffee**

Some utensils for tee and coffee are placed on the rack by the stove cabinet. However, there will be days when tee and coffee have run out.

## **Bedrooms**



There are two bedrooms. The bedroom on the right is bigger than the left one. Forty-year-old Bongpyeong Apartments have several peculiar features that are not found in the present architectural style. One of them is that the door and window frames are made of concrete.

The contractor who renovated this house had suggested to replace all the windows and doors with up-to-date ones. We declined his suggestion at the time because we couldn't afford the cost. Besides, contrary to Jeonghwa, I wanted to keep the old concrete frames. The Japanese governor-general's office building has been dismantled in 1995. Many people either favored or opposed the dismantlement for various differ-

ent reasons. I had been in favor of the dismantlement at the time, but now I think the building should have been preserved even though it would have been nearly impossible to find a good compromise. It is unpleasant to be reminded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from the building, but Japanese remains are also undeniable part of our history. Things out of sight fall into oblivion. When these apartments disappear, who will remember that there had been times when concrete had been used as a material for door and window frames?



There is a desk and a water-heating mat in the bigger room. The room has a hanger instead of a wardrobe. It is not uncomfortable at all for two to sleep together as there is none other than these pieces of furniture. It is not certain that a wardrobe will be installed by the end of this year.



You can access the balcony through the smaller room. This room is comfortable for two to sleep, too.

## TV and Internet

A famous joke about Tongyeong is that you may as well kill yourself if you fail to find something good to eat. This implies that Tongyeong has an abundance of food, and in addition there are plenty of things to see and to play. Nonetheless, would you waste your precious time

watching TV? Walking up from Bongsua for 20 minutes takes you into the mountain and walking down for the same time shows you the sea. Keep away artificial images on TV and the Internet and try to feel every element of nature using your all senses.

Considering the frequency of use of Bongsua, the likelihood of deciding to subscribe to an internet TV would remain low unless Bongsua guarantees an amount of profit as a guesthouse.

If you like to listen to music, use the radio on the mini table. It can be also used as a Bluetooth speaker and as an MP3 player.

## Bathroom



The bathroom has two minor inconveniences. One is that the door has no lock. The other is that the toilet will not flush properly. So it is not desirable to throw toilet paper or wet wipe in the toilet. There is a stainless steel washbowl. In a disagreeable situation, pouring water using it might help the toilet flush.

## Balcony



It is not undoubted that smoking on the balcony bothers upstairs neighbors.

You may use the hiking backpack and trekking poles that are kept in the balcony.

## Laundry



A washing machine is installed in the balcony.

To bring down the ceiling-mounted drying rack, jerk away the rope connected to the rack. After hanging out the laundry, pull down the rope to lift the rack, and tie it to something like a window lock as you please.

## Garbage

Use the plastic basket in front of the bathroom to hold a standard garbage bag and recyclables. There are a regular garbage container and a food waste container in front of the apartment numbered 6 to the right of Bongsua. There are also several sacks for recyclable waste next to them.

### Note

Make sure that anything other than combustible waste is not in the garbage bag. Please clean Bongsua before leaving.

## When Leaving Bongsua

Ensure to leave Bongsua as it was when you entered it. If every door and window was open, make sure all of them are open before you leave.

### Ca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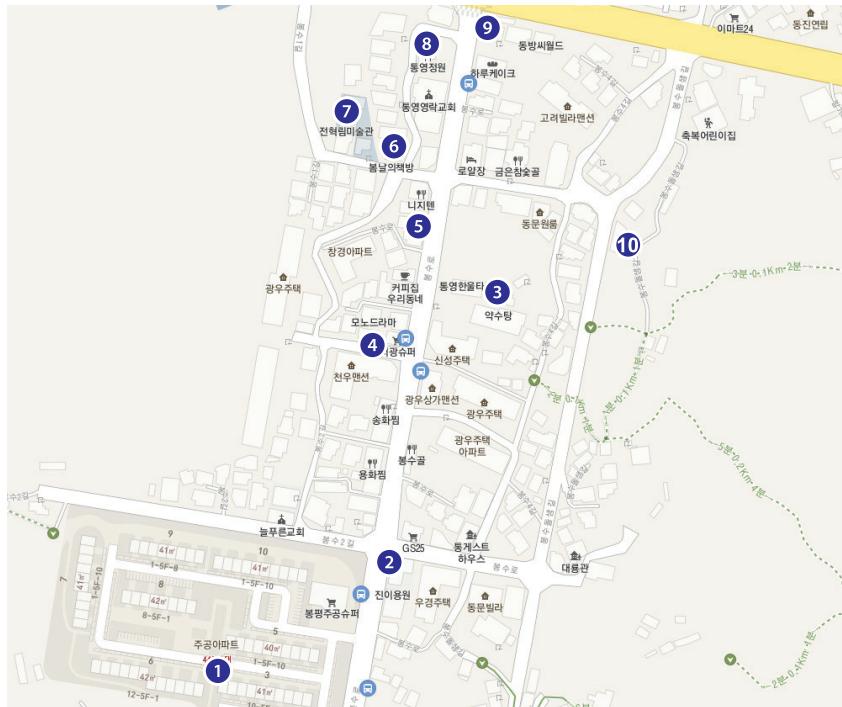
Tongyeong is highly humid in summer as is usual with most coastal areas. Your brief carelessness can allow fungi to grow indiscriminately everywhere, particularly during the rainy season.



## Chapter 3

# Bongsugol

This map shows good places to visit in Bongsugol. The farthest one is a ten-minute walk away from Bongsua.



**1** Bongsua

**2** Ilbong Naengmyeon 일봉 냉면

- ③ Yaksutang 약수탕
- ④ Monodrama 모노드라마
- ⑤ Nijiten 니지텐
- ⑥ Bomnarui Chaekbang 봄날의 책방
- ⑦ Jeon Hyeokrim Art Museum 전혁림 미술관
- ⑧ Tongyeong Jeongwon 통영 정원
- ⑨ Gimseonsaeng Chungmu-Gimbap 김선생 총무김밥
- ⑩ Baekseo Naengmyeon 백서 냉면

There are many restaurants in addition to ones introduced in this guide. Particularly, there are several restaurants which serve steamed fish dishes. Why I don't put them in this guide is not because they are bad but because they are not my favorite. As for raw crab marinated in soy sauce 간장 게장, I have a slight allergy to it.

## Ilbong Naengmyeon

Ilbong Naengmyeon 일봉 냉면 is not best but far beyond the average. It is recommendable to eat the meat dumpling as a side dish. Most restaurants in Tongyeong offer plentiful food or at affordable prices. This restaurant belongs to the latter.

## Yaksutang



A 300-meter walk down the street from Bongpyeong Apartments brings you to Yaksutang 약수탕 on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Yaksutang opens at 6 A.M. and closes at 8 P.M. It is on Thursdays that this bathhouse does not open.

Yaksutang is worth bothering to use. Identify how attractive it is in person.

## Nijiten



You can eat a bowl of rice with fries called tendong 天丼, てんどん at Nijiten 虹天, にじてん. This restaurant closes for a couple of hours in the afternoon as is typical with Japanese restaurants.

Do not expect to get a table without waiting, for this restaurant is quite famous. It has the day off on Mondays.<sup>1</sup>

## Monodrama



Get into the alley across from Yaksutang with a few more meters left to go, take a few steps, and then you can't miss this black and white photo studio. As posing as requested by the owner and photographer, you will realize that Jeon Jihyeon didn't make money easily.<sup>2</sup> Don't be sorry in advance that you will get out of the studio with only one picture of you. At least five or six pictures must have been held in your hand.

## Bomnarui Chaekbang

Bomnarui Chaekbang 봄날의 책방 is a small bookstore run by a publisher called Namhaeui Bomnal 남해의 봄날.

---

<sup>1</sup>[https://www.instagram.com/nijiten\\_ty/](https://www.instagram.com/nijiten_ty/)

<sup>2</sup>She is one of the top class actresses.



Even if it is in pursuit of alternative lifestyles, the bookshelves seem to be in need of more books. The reason is said to be that they evaluate books as selection criteria not based on profitability but on values to share with neighbors.

Most publishers are located in Paju Book City. Is it remarkable that there is a publisher in Tongyeong? Traces of their painstaking thoughts are scattered over this space.<sup>3</sup>

## Jeon Hyeokrim Art Museum

Have you ever been mesmerized by an unfamiliar melody from a shop when walking on a street and stopped to listen to it all the way? I don't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soccer but I perceive Yi Gangin's extraordinary Marseille turn. When walking in a park, occasionally I'm captivated by a sculpture without a discerning eye.



Very special things attract almost everyone like gravity.

It is said that Jeon Hyeokrim, who got attention only in his old age because he had kept himself away from the mainstream, spent most of his life in this workshop.

---

<sup>3</sup><http://bomnalbooks.com/>

## Tongyeong Jeongwon



Tongyeong Jeongwon 통영 정원 literally shows off its garden with rare plants and flowers. The main dishes of this restaurant is sea squirt bibimbap 명게 비빔밥 and oyster bibimbap 굴 비빔밥. Are the dishes delicious as much as the garden?<sup>4</sup>

## Gimseonsaeng Chungmu-Gimbap

Is chungmu-gimbap tasty? I regretted every time I chose to eat Chungmu-gimbap. 'Why is it so expensive? Is a royalty added to the price?'

Chungmu-gimbap houses and kkulppang bakeries are entangled like the warp and woof of a fabric along the coastal road of Gangguan 강구안. A plate of chungmu-gimbap that I had at a restaurant in the district reminded me that Tongyeong is home to chungmu-gimbap. However, it was not very impressive to me.



Chungmu-gimbap of this house is flawless in taste from gimbap to seasoned squid, but the quantity of the seasoned radish and squid is much more than that of the gimbap.

The spices are rather heavy so that you might feel discomfort in your stomach. In other words, nobody can complain the quantity.

---

<sup>4</sup>My wife and I didn't come to an agreement on this matter. Take into account that few foods taste bad for her.

## Baekseo Naengmyeon



Perfection is achieved, not when there is nothing more to add, but when there is nothing left to take away. Antoine de Saint-Exupéry

Once you taste Baekseo Naengmyeon, you'll find that this praise is not flattery.

In the last few years, many Bongpyeong-dong residents have moved out to Jungnim 죽림, where a new town has been built. The vacant places have been filled one after another by people from other provinces. That is a story entirely different from a typical gentrification narrative. Some of the newcomers found Bongsugol to be a good shelter for their souls. The husband and wife owners of Beakseo Naengmyeon are ones of the newcomers. You can see from a bowl of their naengmyeon that their life's journey was not ordinary.

## Momgua Maeum



After a 150-meter walk from Bongsua to Yonghwasa, on the left side of the street, you will reach a cafe with two M's on top of the door, hinting "Momgua Maeum" 몸과 마음. It is not visible on the map on page 51, though.

This cafe is densely with unusual and partially exotic items.

## Chapter 4

### Mireukdo and Tongyeong Peninsula



Tongyoungdaegyo Bridge and Chungmugyo Bridge over a narrow strait called Pandemok 판데목 connect the Tongyeong peninsula to Mireukdo island, where Bongsua is located. The picture above is taken from Chungmugyo.

According to an old story, Pandemok was so shallow that Mireukdo became a peninsula at low tide and an island at high tide, and so the waterway was easily reclaimed or broken open as needed since the Goryeo dynasty. However, it does not sound plausible. Large-scale civil engineering projects such as canals require considerable technology, a large labor force and a justifiable purpose, but it is hard to imagine that such events were possible in Tongyeong before the twentieth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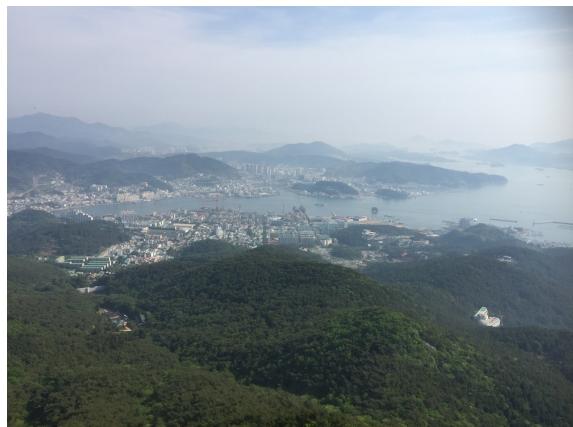
There is another way to get to Mireukdo.



That is the undersea tunnel buil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ramp to the tunnel on the Mireukdo side is long and slow. The roof over the ramp is impressive.

It is said that the Japanese empire made a canal by excavating Pandemok more deeply and then built the tunnel passing under it, but the purpose of the construction remains unclear. Would it have been a tentative construction for full-fledged projects in mainland Japan?

## Gondola Lift



The human field of view can extend only to 200 degrees, so it is likely to be false that everything is seen at a single glance. If you look down north from the summit of Mireuksan, you will see the area where humans largely live.

The easiest and fastest way to go up to Mireuksan is to use the ropeway. The lower terminal station is a 30-minute slow walk away from Bongsua. You can buy tickets from 08:30 to 18:00, and the ropeway starts running at 09:00. A round trip for an adult costs ₩14,000. It takes only 15

minutes at a brisk walk from the upper terminal station to the summit.<sup>1</sup>

If you choose to walk down from the summit, you can save ₩3,500 since the fare for a one-way ticket is ₩10,500. The track along the ridge is slow and not arduous to hike, and it takes less than two hours at a slow walk to Bongsua.



The upper station has two glass-floor observation decks. If they were more frightening, it would be more fun. What you see beyond Mount Mapasan from the east deck is Hansando Island.

The extensive field in front of Mapasan is Dongwon Royal Country Club. Golf is too expensive a sport for me to enjoy.

## Luge Ride



If you are accompanied by children, it will be hard to pass without dropping into Skyline Luge that is next to the lower ropeway station. This is the live-action Kartrider game rather than a wheeled luge sled.

It is very crowded on weekends, so weekdays are better to use.<sup>2</sup>

## Cypress Forest

The Cypress Forest 편백나무 숲 which belongs to Miraesa Temple is a 20-minute drive away from Bongsua. The lane through the forest continues more than 200 meters. The scenery of this forest is uncommon but not

<sup>1</sup><http://cablecar.ttdc.kr/>

<sup>2</sup><https://www.skylineluge.com/ko/tongyeong/>

very attractive, moreover not spacious, so it might be a little disappointing.



However, the view you suddenly encounter at the end of the lane creates an intensive impression, extremely contrasting with the forest. Consequently, it changes the forest into a mystical place.

Perhaps it's like the excitement you feel when you unexpectedly come across your lover who you date with even every day.

## Haeannurigil

The driving distance around Mireukdo is less than 30 kilometers, which is a moderate distance to travel on a bicycle. There is a bike rental shop by the junction where Donam-ro and Balgae-ro meet, leading to Donam Tourist Complex. The shop rents out electric kickboards as well as bicycles.

Jeju-do began to build Ollegil 올레길 for the citizens and tourists in 2007.<sup>3</sup> Afterwards, many other local governments, following Jeju-do, built footpaths called dulegil 둘레길, along which people can take an excursion around the cities or towns.



Mireukdo also has a dulegil named Haeannurigil 해안누리길, which begins at the back of Kumho Tongyeong Marina Resort. It would be great to have a bicycle ride if the trail continues along the coast, but it doesn't unfortunately.

---

<sup>3</sup>Ollegil is a long trail around the entire of Jejudo Island.

## Park Kyongni Memorial Hall

We can see a couple of swords that are known to be granted to Admiral Yi Sunsin in his shrine called Chungnyeolsa 忠烈祠.



What can we see in a novelist's memorial hall? Would not a visit to the memorial hall be in vain for one who has never read any her works?<sup>4</sup> Who should deserve to be called *Great* among the figures we remember?

Jeonghwa bought a copy of 김약국의 딸들 and finished the book within two days.<sup>5</sup>

통영은 다도해 부근에 있는 조출한 어항이다. 부산과 여수 사이를 내왕하는 항로의 중간 지점으로서 그 고장의 젊은이들은 조선의 나폴리라고 한다. 그러니만큼 바닷빛은 맑고 푸르다.

## Tongyeong Fisheries Science Museum

Fossil wood would be interesting as well for ones who have interests in ancient stuff. This museum has various specimens of fossil wood.<sup>6</sup>

Fossil wood offers an extraordinary experience of sensation. ‘Why are pieces of firewood placed over there?’ I had no doubt that they were anything other than wood even when I was coming close to them. The feeling you have at the moment you touch it would be beyond surprise, especially when you are not aware of what it is.

<sup>4</sup><http://pkn.tongyeong.go.kr/main/>

<sup>5</sup>The English version is titled “The Curse of Kim’s Daughters”.

<sup>6</sup><http://muse.ttdc.kr/>

## Yi Sunsin Park



Except that Yi Sunsin's statue is erected in Yi Sunsin Park, which is predictable by anyone, a landscape that is quite different from the typical image that people are likely to have of a park lies behind the statue. The placard that is suspended from the kites, way much longer than seen, in this picture reads:

"Everybody here be happy."

Thanks. I'm already high enough, though.

## Dongpirang and Seopirang

"Pirang" means a steep slope. Situated on the hill slope behind Jun-gangsjang 중앙시장, Dongpirang 동피랑 resembles Gamcheon Village 감천마을 in Busan. The paintings on the walls along the narrow alleys between the small and old houses make the village unrealistic. Most houses seem to go to bed early, which is might be due to the disturbance by tourists or because many of them are engaged in businesses that begin at dawn.

Seopirang 서피랑 in which Park Kyongni had been born is also known to be the location where Yi Jungseop stayed during the Korean War.<sup>7</sup>



Park Kyongni's words are printed here and there in Seopirang. It is another pleasure to find old houses, older houses, and very old houses in Seopirang as if tracing the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It is said that Seopirang gradually became a red-light district after liberation from Japan. What might have happened would be like this. A boat full of fish returns to the harbor. The owner in excitement dis-

---

<sup>7</sup>Yi Jungseop is one of Korea's most celebrated painters.

tributes two bundles of money to each of the crew who is getting off the boat. Their destination is not home but a pub in Seopirang. When they drink clamorously, the wives are anxiously ambling around in front of the house gate with her toddler on the back, repeatedly looking at the entrance of the village in expectation of her husband's appearance. Even when the night grew late and the morning star rose, the husbands have not returned yet. When the fishers woke up to find themselves laid in one corner of a brothel, it is only a couple of coins that they fumbled in the pocket. 'I can't go home. I have to get aboard again!'

## Buksinsijang

There are three marketplaces in Tongyeong: Jungangsijang 중앙시장, Seohosijang 서호시장, and Buksinsijang 북신시장. Buksinsijang is the best for taking out sliced raw fish and seafood. It is the marketplace that the locals favor the most, as Jungangsijang mainly aims at tourists and Seohosijang has more wholesalers than retailers. Tongyeong people prefer to call it Geobuksijang 거북시장 rather than Buksinsijang. There are two public parking lots nearby, and the parking lot of New World Mart is also available. Of course, you should buy at least a pack of cigarettes to use the mart's parking lot for free.



## Chapter 5

### Islands



There are many ferries between Tongyeong Ferry Terminal and nearby islands.<sup>1</sup> Ferries to the nearest island, Hansando 한산도, are available per hour, and ones to farther islands are less frequent. The daily parking fee is ₩5,000.

Not every ferry starts from Tongyeong Ferry Terminal, since the harbor is not large enough to accommodate ferries on all routes. Wouldn't it be fun to find out more ferry terminals as going around Mireukdo?

#### Note

You must bring your ID card to use a ferry. Your ID card is required when getting aboard as well as when buying a ticket.

<sup>1</sup><http://masan.mof.go.kr/content/view.do?menuKey=472&contentKey=177>

## Hansando

閑山島月明夜. 上戍樓. 撫大刀深愁時. 何處一聲羌笛更添愁.

Hansando in the bright moonlight,  
Up on the lookout,  
When stroking my long sword in deep anxiety,  
From somewhere, a sound from the barbarians' flute  
Deepens my sorrow.<sup>2</sup>

That lookout is in Hansando Island. Not far from it, there is the archery range, called Hansanjeong 한산정, that Admiral Yi Sunsin and his staff used.<sup>3</sup> However, I am not sure if they are attractive enough to take the ferry.

## Bijindo



Bijindo Island, which is a 50-minute ferry ride away from Tongyeong Ferry Terminal, looks like an hourglass. The eastern half of the narrow waist, called Oehang 외항, is made up of stones and rocks, and the western half is occupied by the sands.

When I stepped on that island with my wife, it was not the right season to bathe in the sea. “What should we do?” After we’d had a pot of rockfish stew, we decided to hike to the southern summit called Seonyubong 선유봉. Following someone’s advice that the straight path from the entrance to the summit is steep, we chose the path to the west. Two hours later, we realized that the advice was useless. On the contrary, the inverse path is maybe better. It is 312 meters above sea level. Keep it in mind that the altitude is what you should reach literally from the sea surface. However, it will not end in vain, since the spectacular

---

<sup>2</sup>A poem written by Yi, Sunsin in 1595

<sup>3</sup>The targets are 150 meters away from the pavilion with a cove in between. Imagine arrows flying over the sea surface.

landscape on the southwestern hillside is waiting for you like an unexpected gift.

## Somaemuldo

Somaemuldo Island is 40 minutes further south of Bijindo.



As you come close to Somaemuldo, islands are fewer and the horizon is more continuous. The horizon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East Sea 동해 . Any picture could not convey the Somaemuldo sea as it is.

A 50-minute walk from the jetty to the opposite side of the island, going over the summit or along the hillside, shows you the destination, the Lighthouse Island 등대섬 . Low tide allows visitors to walk across the stony ford to the Lighthouse Island. The timing of low tide is delayed by about 50 minutes every day.<sup>4</sup> I crossed over the ford when the water was knee-high. The water was crystal clear, which made me feel like I was traversing a gorge, not a sea. I will never forget the curious experience in my life. Somaemuldo and the sea around it are worth visiting despite being in debt.

### Caution

Not only gulls and migratory birds but also vipers inhabit Somaemuldo.

<sup>4</sup><http://www.khoa.go.kr/swtc/main.do>



# Chapter 6

## Festivals

Tongyeong has so many things to celebrate that small and big festivals are held throughout the year with few breaks.

### Cherry Blossom



Although cherry blossoms are visible almost everywhere, the ones that bloom suddenly for a few days between March and April, while there is still snow on top of Daegwallyeong 대관령, are as delightful as an unexpected visit from the beloved. The cherry blossom festival that begins earliest on the Korean peninsula is held in Bongsugol.

## Cultural Heritage Night Tour



The name “Tongyeong” has come from 三道水軍統制營, which corresponds to today’s naval command.



The main building of the headquarters is Sebyeonggwan 洗兵館. As this picture proves, the V-sign doesn’t match that structure which is no less magnificent and beautiful than Gyeonghoeru 경회루.

Ms. Jeonghwa, step aside, please.

## Chapter 7

### Tongyeong Is to Us



I knew nothing about Tongyeong before Jeonghwa and I visited it for the first time in 2016. She would visit and stay at the port city for a few days due to her acquaintances to whom it is home, either permanently or temporarily. Isn't it a natural desire everyone has to feed their children with delicious food and to show their spouse a nice place?

We stayed in Napoli Hotel with a view of Gangguan 강구안 at the time, yet it was long before I learned that the name *Napoli* was not made haphazardly. The Napoli of Joseon was alluring to me like a girl whom I fell in love with at first sight.

Incomplete three years later, she said to me abruptly.

"I heard there are some cheap apartments in Tongyeong. I'll go to see them."

Maybe one day after she left home, she called me.

“I found an adequate apartment. I want to buy it.”

If I were her, I would have written a report that describes general information, including the dimensions and price, expected scope and cost for renovation, and usage plans or its potential value as real property. I restrained my impulse to ask her all of these questions and simply answered, “Do as you like.” If she made such a report, she is definitely not herself. Would our marriage have been happier if she had similar traits as mine? I don’t know. What is clear is that she wanted to buy an old and shabby apartment which is 380 kilometers away from our residence, and that whatever takes hold in her mind never goes away unless she gets what she wants, which is a lesson I have learned in the nearly 20 years I have thus far spent with her.

Two weeks later, Jeonghwa and I was at a real estate agent’s office in Tongyeong to sign the contract for our new but old apartment. After that, things went fast. We were down there again at the end of March to pay the balance.

We’ve found a house cleaner on the Internet and asked him to remove the wallpaper and floor coverings as well as the broken boiler. Probably it was very laborious to rip off the multiple layers of wallpaper that had been pasted over one another as needed over the past few decades.

There is a social network that has been established among the newcomers who have settled in Bongsugol in the last few years. A friend of Jeonghwa’s has a tie with the network. How could she find out the existence of Bongpyeong Apartments without such a tie? A social network is like such a sport club or epidemic that only one single contact connects you with everyone else. Among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 couple of husband and wife began to live in a Bongpyeong Apartment a year earlier before we purchased ours. They introduced a renovator to us.

It was April now. I ordered several appliances, including the electric stove, from Coupang. One of my colleagues owns a pickup truck. With his help, I took the new home articles together with used ones to Bongsua. It took us nearly five hours with a bucket of sweat to install every

piece of furniture and appliance I took.



Along Misuhaeon-ro Street, there are many restaurants, most of them specialized in sliced raw fish, from among which I chose a fancy-looking restaurant, called Minsusa 민수사, to appreciate our labors.

Have I ever eaten an ample and evenly delicious dish course like this before?

A week later, Jeonghwa went to Bongsua with her friend. When she came back a few days later, she asserted that they have done many things to tidy up the apartment. When I visited Bongsua with her on the Children's Day weekend, I found few changes they made, except that cups and plates are neatly placed on the shelves. There were still many things to be done. There are some irremovable stains on the bottom of the sink. They are hardened drops of varnish which Jeonghwa dripped when applying to the shelves over the sink.



As a reward for our labor, we chose Dongbaek 동백 which is in the same building as Minsusa. I hate leaving food, but I didn't have to worry about that in that restaurant.

We stayed for four days from Memorial day, and I finally completed the interior decoration. I installed multiple straw curtains for the balcony windows, and installed a drying rack to the balcony ceiling. I installed a hanger in each room, a table in the living room, and had an air conditioner install for the living room. Bongsua is now a livable apartment.



---

© 2019 Yi Hoze and his wife Yi Jeonghwa  
86, Bongsu-ro, Tongyeong-si, Gyeongsangnam-do

